

톨루엔 · 자일렌 가격포물러 “변경”

일본, 나프타 가격상승 및 수급타이트로 ... 수입가격 급상승 불가피

일본에서 용제용 Toluene 및 Xylene의 가격 포물러가 개정된다.

2004년 4월부터 계약 갱신 때나 1-3월분부터 실시하는 등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메이커 및 주요 딜러들이 개정안 발표를 시작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안정공급을 내세운 포물러제를 운영했지만 1-3월 일본산 나프타 가격이 kg당 2만8000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톨루엔 및 자일렌 자체의 국제적인 수급악화에 따라 해외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급 부족분을 수입으로 메꾸려해도 수입가격과의 차이가 kg당 15엔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포물러 베이스 가격으로 kg당 3-5엔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Idemitsu Petrochemical(出光石油化學)은 1-3월분부터 포물러 계약처에 대해 베이스 가격을 3엔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Mitsui물산(三井物産)은 한국의 톨루엔 및 자일렌 가격이 FOB Korea 톤당 530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가격차이 축소를 목적으로 기존의 포물러 계약처 수요처에 대해 베이스 가격을 kg당 5엔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다른 상사계 딜러들도 포물러를 개정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4월 이후 국제시세 요소를 포함한 베이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요처와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으나 공급이 어려워 수요처가 포물러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구량 중 1/2밖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톨루엔 및 자일렌 포물러 계약은 해당 4분기의 일본산 나프타 가격을 베이스로 결정하는데, 다음 4분기에 들어선 이후 나프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임시가격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어 ERP(업무통합 패키지 시스템) 도입이나 4분기 결산을 공표하는 회사는 결산수치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때문에 주류는 아니지만 일본산 나프타 가격 결정을 기다려 가격을 결정하기보다 가격결정을 예상해 해당 4분기에 확정짓고 일본산 나프타와 크게 차이가 나면 다음 4분기에 조정하는 방향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오픈시장(포물러 계약 이외)은 kg당 10-13엔의 가격인상이 제시돼 있다.

일본의 톨루엔 및 자일렌 생산기업들은 독자적으로 가격수정을 통고하지 않게 돼 있는데 달러에 의한 가격 협상이나 수요처의 포물러 계약쪽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상사계의 딜러들은 각각 4월부터 실시되는 사례가 많으나 포물러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수요기업들은 나프타 가격급등 및 세계적인 BTX 수급악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포물러를 변경함으로써 거래신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10>